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②

若隨語生見 齊文作解 逐教迷心
약수어생견 제문작해 추교미심
指月不分 未忘名聞利養之心
지월불분 미망명문이익양지심

未專道力 先聖之旨 明驗日月
미전도력 선성지지 명유일월
豈可廣尋諸義
기가광심제의
不求己身 而永劫沈淪乎
불구기신 이영감침륜호

만약 말에 따라 견해를 내고, 글을 따라 해석을 하고, 교(敎)를 좇아 마음이 미혹되어 손가락과 달을 분별하지 못하고(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뜻), 명예와 이익에 대한 생각을 잊지 못하면서 설법으로 남을 제도하겠다는 사람은 마치 더러운 등껍질이 자기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히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문자법사(文字法師)일뿐이니, 어찌 선경과 지혜를 닦으며 명예를 구

《화엄론》에 ‘스스로 결박되어 있으면서 남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였고 또 지공법사의 <대승찬>에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도(道)를 가지고 도를 구하려 하는가? 여러 가지 뜻을 찾아 헤매다 제 몸도 미처 구제하지 못하는구나. 남

흔탁한 애욕이 마음 얽어매어도 버리지 못하니 스스로 괴로워라

하지 않는 이라 하겠는가.

華嚴論云 若自有縛 能解他縛
화엄론은 약자유박 능해타박
無有是處 誌公法師大乘讚云
무유시처 지공법사대승찬운
世間幾許痴人 將道復欲求道
세간기허치인 장도부유구도
廣尋諸義紛
광심제의분운
自教己身不了 專尋他文亂說
자구기신불료 전심타문난설
自稱至理妙好 徒勞一生虛過
자칭지리묘호 도로일생허과
永劫沈淪生老 渴愛纏心不捨
영겁침륜생로 탁애전심불사
淸淨淨心自纏 眞如法界叢林
청정정심자비 진여법계총림
返作荊棘荒草 但執黃葉爲金
반작형극황초 단집황엽위금
不悟黃金求寶 口內誦經誦論
불우금구보 구내승경승론
心裏尋常枯淡 一朝覺本心空
심리심상고조 일조각본심공
具足眞如不少 阿難曰一向多聞
구족진여불소 아난일향다문

의 어지러운 글만 보면서 지극한 이치가 묘하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헛되이 일생을 보내니 영원히 생노병사에 빠지고 마는구나. 흐린 애욕이 마음을 얽어매어도 버리지 못하니 청정한 지혜의 마음은 스스로 괴로워라. 진여법계의 총림이 도리어 가시뿔을 거친 풀밭이 되었구나. 누런 잎을 가지고 금이라 하여 그걸 버리고 참 보배 구할 줄 모르니 아무리 입으로 경론을 외더라도 마음은 항상 메달라 있다. 하루아침에 마음이 공한 줄 깨달으면 완전히 갖추어진 진여가 적지 않으리라 하였다. 또 아난은 ‘많이 들기만 일삼으면 도락에는 마음을 쓰지 못한다’ 하였다. 옛성현의 교훈이 일일보다 분명한데 왜 잡다한 뜻을 찾아다니고 자신에게서 구하지 않아 영겁의 생사에 빠지랴. 다만 광행(廣行)하는 여가에 성현의 가르침과 도에 들어간 옛스님들의 인연을 자세히 살피고 정사(正邪)를 가려 남과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무방하다. 한결같이 밖에서 찾으며 이롭고 모양을 분별하기를 마치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세듯이 하면서 헛된 세월을 보내서는 안된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가까이서 뵈 큰스님

범룡스님

조계종 전계대화상

“비워라, 그래야만 채울 수 있다”

“계놈”이 뭐여?”

15일 오후에 찾아온 기자에게 범룡스님은 불속 이런 질문을 던졌다. 스님의 시선은 신문 한 복판에서 멈춰있었다.

“예, 계놈이란 인간유전자정보를 뜻하는 말인데요... 잘못되면 복제인간도 나오구요, 그러면...”

“몸은 같을지 몰라도 마음이야 같을 수 있나. 과학으로 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법이지. 우주대자연의 원리를 누가 주고받고 할 수 있나. 질서를 깨뜨리면 혼란이 올 것 이야.”

세수 88세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깨끗한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단박에 ‘큰 스님’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무게’를 느꼈으리라. 하기가 범룡스님이 어떤 분인가. 스님을 배출하는 계단(戒壇)을 관장하는 조계종단의 전계대화상이 아니던가.

“전계대화상? 그게 뭐 중요한가, 수행만 잘하면 되지.”

그랬다. 수행만 잘하면 된다는 스님의 말씀은 스님 자신이 평생 지키고 살아온 신념이자 자세다. 스님은 지금도 하루 4시간 이상을 자지 않는다. 밤 10시경 들어간 잠자리에서 깨는 시간은 새벽 2시. 이때부터 아침 6시까지 참선에 든다. 죽으로 아침 공양을 하고 나면 또다시 참선에 몰입한다. 점심공양은 따로 하지 않고 참선과 경전읽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낸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 위해 일간신문 하나를 뜯어보는 것이 싫어하면 읽일까.

“스님, 계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에는 질서가 있는 법이지. 계는 질서는 바로잡는 것이라고 보면 돼. 이 계위사(以戒爲師)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는 뜻이지. 자장율사도 ‘영위지계 일일생(寧爲持戒一日生) 이언정 불위파계 백년생(不爲破戒百年生)’이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계를 지니고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파하고 백년을 살지 않겠다’는 관음인(觀音人)에 가까워야 한다고 하지 못하건 참수행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계율에서 겨란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 율이란 시대와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이지. 율이라는 글자에는 ‘지법개차(持犯開遮)’ 이 법 자의 뜻이 들어있는데, 가지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가지기만 하면 고집불통이 돼서 못서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것이 율이지.”



범룡스님은 수행의 바른길을 제시할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이 없으셨다. 스스로 깨우치고 찾으라는 가르침이다.

스님의 하루일과

참선·경전읽기 반복

“수행만 잘하면 된다”

평생 지켜온 신념

“가지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글쎄, 지법개차라니까.”

더이상 말씀이 없으셨다.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지식이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무언의 꾸짖음이었다.

22살에 출가했으니 산문에 들어선 지도 벌써 66년째. 스님은 금강산, 구월산, 묘향산, 지리산 등 전국 팔도에서 선방을 찾아다니며 수행을 누치지 않았고, 한암, 만공, 동산, 효봉, 경봉스님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는 등 한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화엄경>, <능엄경>에도 능해 후학들로부터 선 교

율을 모두 갖춘 몇 안되는 선지식으로 알려져왔다.

범룡스님은 한암스님으로부터 받은 무(無)자 화두를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 유점사 승가대학을 마친 뒤 범룡스님은 곧바로 상원사 한암스님을 찾아가 참선과 <금강경>을 주로 배웠다. 범룡스님은 한암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을 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했다.

“참선을 하다가 심중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몹시 금급했지. 어느날 한암스님께 여쭙었더니 스님은 화두를 들 때 망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심중병이라고 하시더라구. 한암스님을 만난 것은 내겐 행운이었지. 지금 공부하는 수좌들이나 불자들이 참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좌선하는 사람은 누구나 화두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화두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선이 아니야.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틀새로 망상이 나오는 법이지.”

“그렇다면 망상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무슨 방법, 스스로 깨우치고 찾

아야 하는 거지.”

어리석은 질문이었음을 깨닫기도 전에 스님은 <초발심자경문>을 펼쳤다. 그리고는 신문지의 여백에 한자 한자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셨다.

‘거중중(居衆中)하여 심상평등(心常平等)이여다. 할애사친(割愛辭親)은 법계평등(法界平等)이니 약유친소(若有親疏)면 심불평등(心不平)이라 수부출가(隨復出家)나 하덕지유(何德之有)리오’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마음을 평등하게 할지이다. 애정을 끊고 부모를 떠남은 법계를 평등하게 보는 것이니 만일 친하고 멀 친함이 있으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니 비록 출가는 했지만 어찌 덕이 있겠는가 하는 뜻이야. 나는 <초발심자경문> 중에서도 자경문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중히 여기지. 그런데 말야, 10년 뒤에 미륵부처님이 난다니, 어떤 사람은 벌써 낫다니 허망한 소리를 하는데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아도 스스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말야.”

21년간 이곳 비로암에서의 스님의 생활을 엿보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불사(佛事) 성불

교수 초빙

세계수준의 대학원대학교를 개교하기 위하여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에서 다음과 같이 교수님을 초빙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학과, 전공분야, 초빙인원, 비고. Rows include 불교학과, 불교교학(원시불교), 불교교학(유식), 심리학, 사회복지학.

지원자격 가.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다. 불교를 이해하고 신심이 돈독한 분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다. 외국어로 된 자격증명서는 본인인 남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전형결과는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임용직급은 자격기준에 따라 결정함 바. 불교 신자인 분은 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제출기한 2001. 3. 5 ~ 2001. 3. 7. 17:00까지

제출처 02-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 비즈니스센터 705호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 설립추진위원회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2001. 3. 7.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외국어로 된 자격증명서는 본인인 남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전형결과를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임용직급은 자격기준에 따라 결정함 바. 불교 신자인 분은 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아. 본 대학원대학교 개교 지역은 서울특별시내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 02-3486-83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1. 2. 21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

해경스님의 <법화경>강의

<법화경>의 권위자이신 해경스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실상론(實相論)을 중심으로 법화경 강의를 개최하오니 많은 수강 있기를 바랍니다.

- 강사: 해경스님
내용: 실상론(實相論)을 중심으로 한 법화경
일시: 2545(2001)년 3월 3일 개강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강의
자격: 법사자격증 소지자. 법사가 되고자 하는 분.
장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 6동 527-51 무실정사
※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출강 및 통신반 가능합니다.

무실정사 02) 990-7597, 7598
一如會(無說精舍內)

중국최고 국립한약대학 산동 중의약대학 학생모집

Table with 3 columns: 학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Rows include 한의학과, 중의외과, 중약학과.

- 학교소재
▶ 중국 최고 국립한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제약공장, 교육병원, 제약연구소 등
▶ 외국인 기숙사 완비
▶ 군입대 연기 (6년)
주소: 中國濟南經十路53號
중국학교 전화: 0531) 296882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51)626-4730 · 051) 469-12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습관으로 문의 바람

대한불교약사중 충무원

순수한 경민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宇)체'

Advertisement for 'Yunjang's Buddhist Art' featuring calligraphy and a drawing of a figur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Korea Art Gallery and phone numbers.